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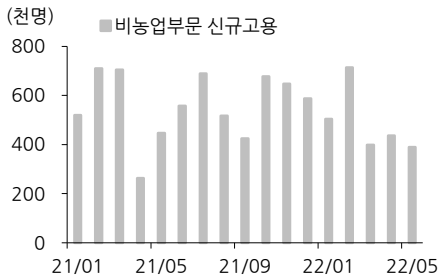
# Macro Review

## 5월 미국 고용: 통화정책 정상화의 근거

▶Economist 임혜윤 hylim@hanwha.com 02-3772-7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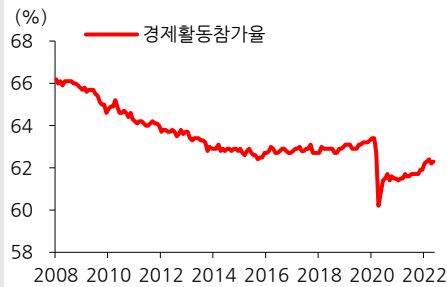
### [주요 데이터 및 차트]

5월 미국 고용, 39.0만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0.1%p 상승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월 미국 고용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세가 강해졌고, 핵심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반등했습니다. 일부 지표가 Peak out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고용 위축보다 고용 회복 강도 약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5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에 비해 39.0만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 레저/관광(+8.4만명), 운수창고(+4.7만명) 등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주도

실업률은 3.6%로 지난 달과 동일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소폭 상승(+0.1%p).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5~54세가 경제활동참가율 반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용은 여전히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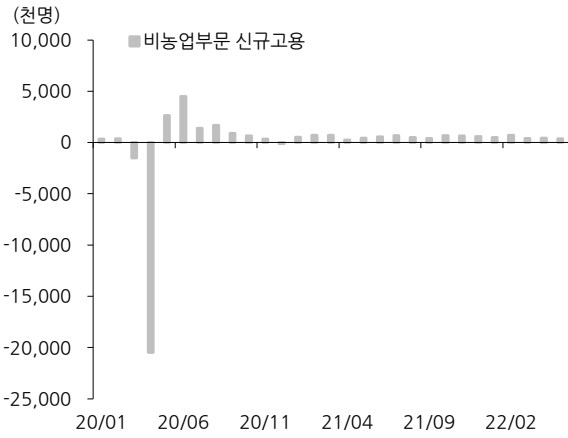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직 및 비관리직 임금 오름세가 강화(+0.4%→+0.6%). 이는 노동시장 초과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 양호한 고용지표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근거

금번 고용지표도 노동시장 초과수요를 반영.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함. 고용 비용이 늘어나면, 가격 인상 등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오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수요 측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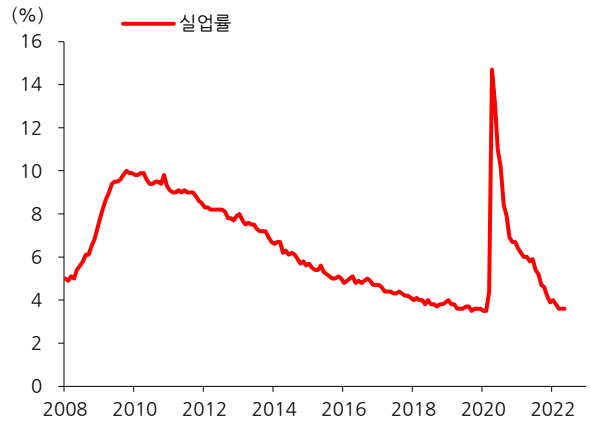
양호한 고용지표는 연준의 정책 정상화를 뒷받침. 일부 지표의 peak out은 고용 위축보다는 고용 회복강도 약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시장은 연준의 정책 정상화에 따른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연준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강한 물가 상승압력을 근거로 정책 정상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도 수요가 양호하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려가 지속될 수 있음

[그림1] 5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39.0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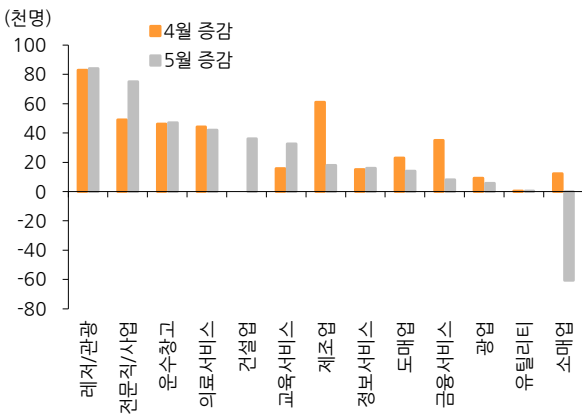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실업률은 3.6%로 지난 달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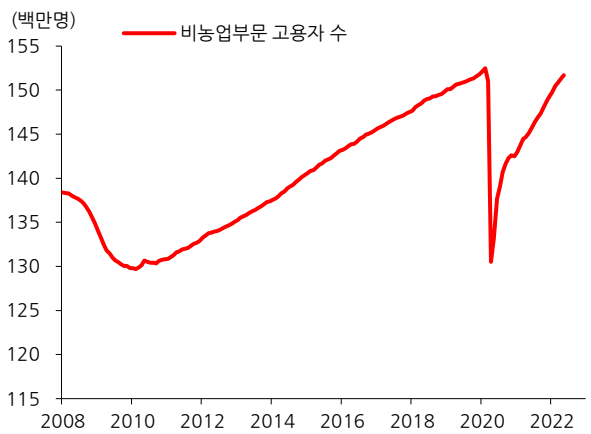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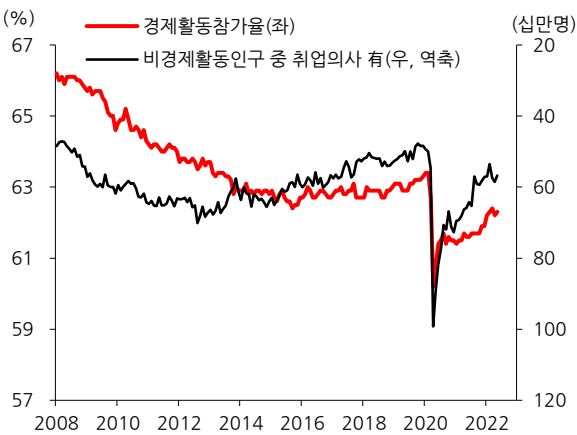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취업자수는 코로나 19이전 대비 약 82만명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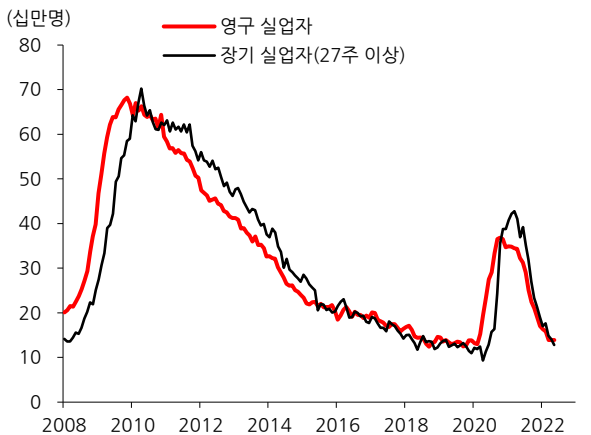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노동공급 차질 해소는 여전히 더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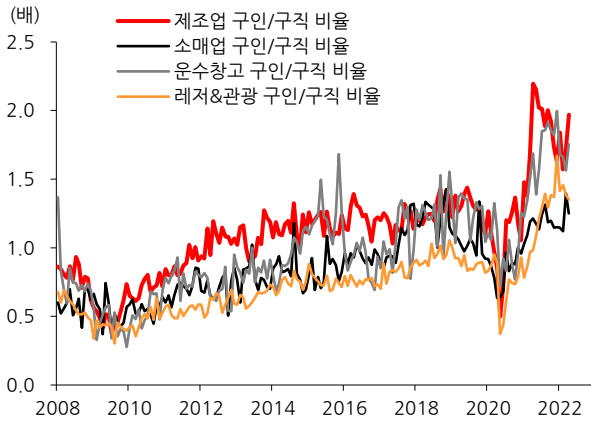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영구 및 장기 실업자는 꾸준히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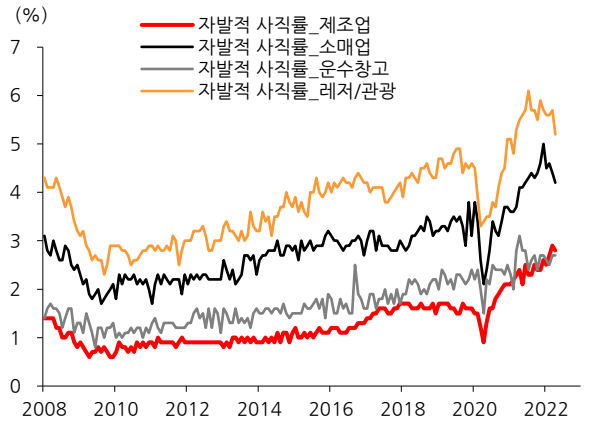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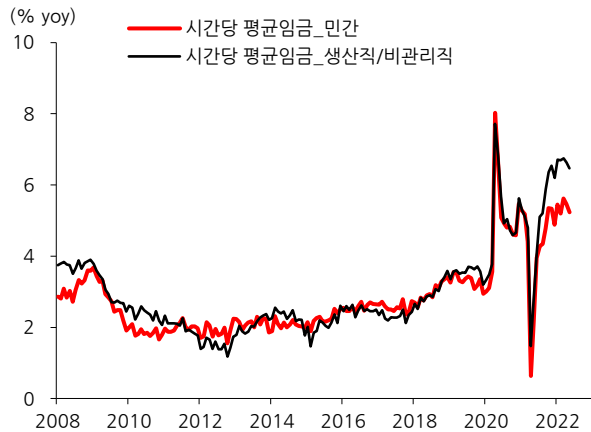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자발적 사직률도 높아 구인이 녹록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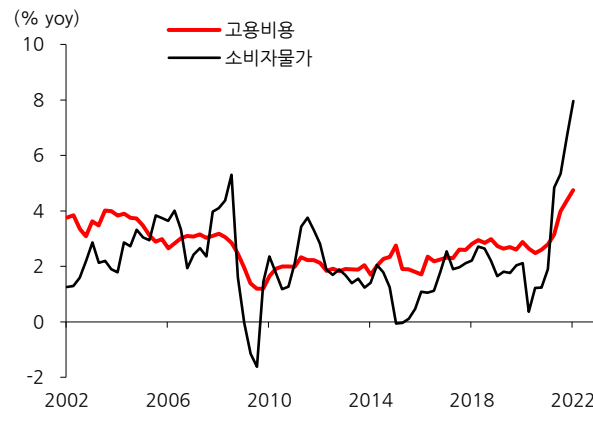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생산직 및 비관리직 임금 오름세 강화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고용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요인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